

HPAI 발생 후 소비자 불신 증폭

전망은 늘 예측을 벗어난다고 했지만 금년처럼 차이가 크게 나는 해는 없을 것이다. 양계업과 관련된 언론매체 대부분들이 연초 경기 전망을 할 때 생산과잉으로 불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여기에다 혹시나하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경기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고 덧붙여 언급했던 바 있다. 물론 쓸데없는 걱정으로 끝나기를 바랬는데 불행히도 깊은 겨울철도 아닌 4월초 봄의 문턱에서 업계의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예고없이 발생되고 말았다.

처음 몇 건 발병 때 까지는 소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듯하더니 여기저기 지역구분 없이 발생하여 전국의 모든 양계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수도권 일부학교에서는 휴교령까지 내려지면서 소비는 곤두박질하여 가금 산업은 초토화될 지경에 까지 이르렀었다.

이후 업계 및 언론과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홍보에 힘입어 소비는 조금씩 회복되었으나, 경기침체와 맞물려 완전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네덜란드의 사례에서처럼 AI 발생 이후 아예 닭고기를 기피하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아 소비가 완전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쇠고기 수입검역 위생조건 불신으로 광우병 우려 문제까지 겹치면서 육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소비감소와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재비 상승, 생산기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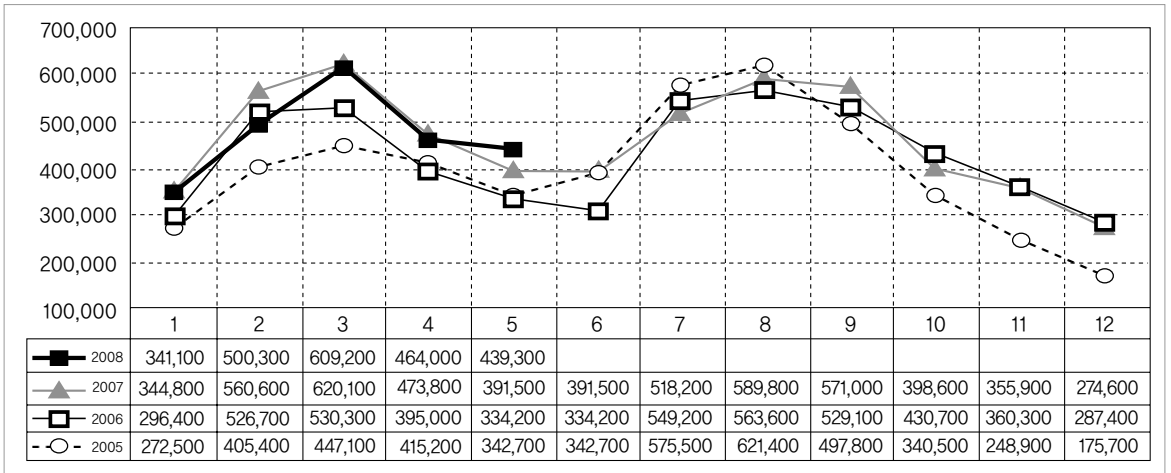
금년에도 몇 차례 더 사료 값 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암울한 예측이 얘기되고 있다. 유류가격 마저 인상되어 닭고기 생산원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졌는데, 부화업계는 400원대에 병아리를 생산하여 100원대에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반복되고 있으니 생업유지는 고사하고 우리가 영위하는 업으로부터 도태되거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소비감소와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량은 줄여야 하는 것이 경제 논리인데 우리 종계를 포함한 육계업계는 생산과잉 효과에 대처하지 못해 타의에 의해 구조조정이 된 후 늘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는 피동적인 경영을 하여 눈덩이보다 더 큰 손실을 감수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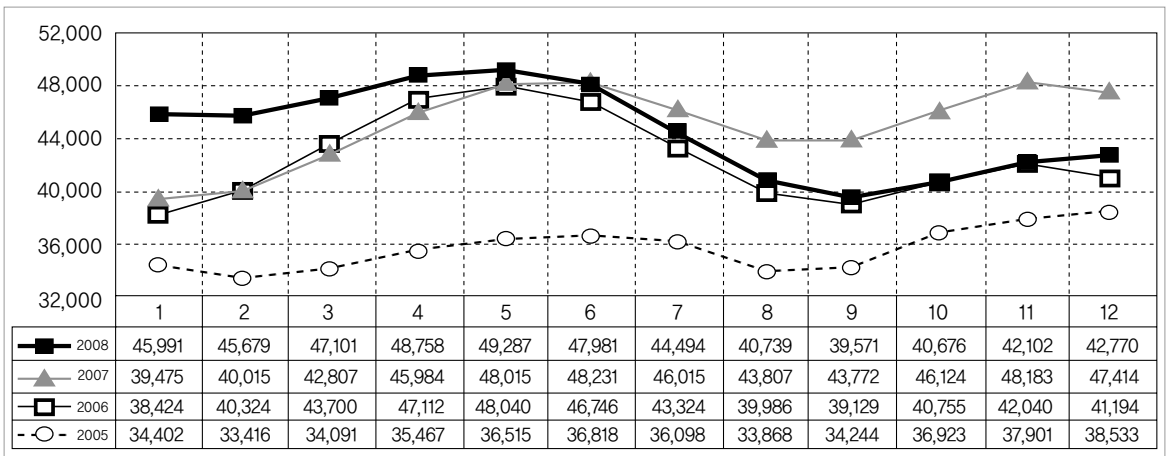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과거보다 더 심하게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농가들의 이탈이 급증할 것이란 예측이 강도를 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유가 인상이



〈표 1〉 지난 4년간 종계분양현황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량 추정



로 운송업계의 물류중단 파업은 사료원료의 공급불안으로 이어져 애기치 못했던 새로운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다. 모든 물류는 제때에 이루어져야겠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우리 축산업은 하루라도 사료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해진다.

종계 입추현황과 병아리 생산추정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종계병아리 분양대비 육계병아리의 생산 잠재량은 7월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종계의 도태로 병아리의 생산량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감소폭만큼 닭고기 생산량이 같은 흐름으로 감소하여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업계의 특성상 도태 주령에 접어든 종계를 약간씩만 끌어도 병아리 생산량은 단기간에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벌써 종계도태로 인한 생산량의 차질을 맞추기 위해 많은 종계가 환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선부른 기대를 넘어 또 다른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I 후유증 극복이 관건

AI발생으로 소비가 감소되면 생산량에 관계없이 가격하락 폭이 매우 커진다. 이는 2003년 AI 발생 이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2003년의 경우에는 전 국민이 언론사와 함께 소비홍보에 동참하여 빠른 극복을 보인 반면 2006년에는 관심이 적었던 탓에 소비침체로 육계업계는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광우병 사태와 국내 경기침체가 맞물려 국민들이 육류소비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흐름에 따라 육계 경기가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AI 발생 때 수매했던 엄청난 물량의 닭고기 재고가 가격상승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우려된다.

도산 후 안정은 무의미

육계업계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경기가 안정됨은 예외가 아닐 것이다. 원가 이하의 병아리를 판매하다 보면 언젠가는 병아리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예상되는 대목이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육계업의 경기가 안정을 찾는다 해도 수많은 농가들이 줄도산을 하고 나서 안정이 찾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육계업계가 자발적으로 소비에 맞는 생산을 유도하여 급격히 도산하는 농가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품질향상과생산성이 경쟁력

제아무리 상품을 싸게 생산한다 해도 품질이 저조하면 구매력은 낮아진다. 곡물가격이 급상승하고, 유가가 하루하루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지만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닭고기의 품질을 저하시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농장에서는 생산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하고, 유통업계에서는 생산된 닭고기가 소비자에게 위생적이며, 공급가격이 낮아지도록 합리화를 꾀하여 시장을 넓히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면서 더워지는 금년 삼복에는 걸쭉한 삼계탕으로 건강을 유지해 보기를 모든 육계인과 소비자에게 권해본다. 